

꿈과  
현실, 그 속에서  
죽음과 삶을 찾을때...  
난  
진정한  
행복  
웃음을 지을수가 있었다.



## 내 보금자리, 내꿈, 내 행복이 나를 울릴때

내 누우런 환자복에서 하얀색의 장미꽃이 필때 난 그 장미꽃이 제2의 인생을 밝혀주는 꽃이 되었다.

오늘 해가 동천에 뜨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빛은 나의 눈속에 투영되어 나를 어디론가 이끌어 갔다.

이름도 없고 산과 나무뿐인 어두운 산골 자기였다.

난 그곳에서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애야! 넌 이곳에 무엇하러 왔지.」

내나이가 35살인데 난 “애”라는 칭호를 들었다. 그 할아버지는 흰수염이 보기 좋게 땅으로 내려진 노인이었다. 나이는 짐작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저는 왜 이곳에 왔는지 몰라요. 그냥 이곳으로 와있어요, 내몸이 말이에요.」

「그래.」

난 이상했다. 난 분명히 아침 까지만 해도 내 병실에서 누워있었는데 이곳에 왜 내가 왔을까? 나역시 그것이 궁금했다.

「애야! 이곳은 네가 올때가 아직 이르다. 그리고 넌 이곳에서는 살수도 없단다.」

「할아버지 그럼 난 어떻게지요. 집에는 내가족이 있어요. 난 가족들에게 가야 하는데 도대체 여긴 어디고 난 어떻게 집에 가야 되지요. 예 - 할아버지 말씀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었다. 난 불안했다.

난 내가족이 보고 싶었다. 내아들 영철이

『여보! 수술은 성공이래요! 이젠 안심해도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렇습니다. 부인, 이젠 부인의 몸은 건강합니다.』  
햇빛이 밝게 내병실을 비쳐준다.

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싶었다. 내 남편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난 집에 가고 싶었다. 난 막 뛰었다. 몇시간을 뛰었는데도 난 제자리에 있었다.

난 미칠것만 같았고, 무서웠다. 산골짜기는 어두워졌다. 도처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난 몸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날 집으로 보내줘!」

「난 집에 가야돼!」

「영철아! 엄마가 여기 있다.」

「여보- 어머니, 아버지 나를 데려가줘요!」

난 소리를 질렀다. 메아리가 울려서 다시 내게로 들려오고 있다. 무서움, 두려움, 난 또다시 소리를 친다.

「날 집에 데려다 줘!」

그리고 난 쓰러졌다.

난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의 세계에서 하루를 보냈다.

「여보! 여보!」

난 눈을 떴다.

눈앞에는 내 5살난 아들이 있고 사랑스런 남편, 그리고 하얀까운 입을 의사, 간호원, 어머니, 아버지 이것이 현실인지 난 눈만 뜨고 있었다.

「여보! 수술은 성공이래! 이젠 안심해

도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렇습니다. 부인, 이젠 부인의 몸은 건강합니다.」

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여보! 무슨 꿈을 꾸었소, 어린애 처럼, 집에 데려다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제가요?」

「응- 당신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막 큰소리를 치고 그랬어.」

「맞아, 엄마!」

내아들 영철이가 이렇게 예뻐보일수가 없었다.

난 내아들 영철이를 꼬옥 껴안았다.

맞아. 그것은 꿈이야! 난 지금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잖아!

햇빛이 밝게 내 병실의 창문을 때린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난 알았다.

내몸속에는 이젠 암의 세포가 없어진 것이다. 완전히. 난 새로운 생명의 잉태감을 맛보았고, 또한 생명의 끈기와 소중한 고귀함을 알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그곳에서 날씨가 밝은 날이었다.

오늘은 어제 반상회에서 알려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의 집담검사를 받는 날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간염검사를 받는날,  
『아주머니 1 세이하의 B형간염은  
그 90%가 만성보균자로 지속되고,  
이 만성보균자의 40%가 30~40년후에  
간암으로 사망하고, 15%가 간경변증을 나타내요 』  
『간암, 간경변증요?』  
『네.』

우리동네 주민 40여명이 검사를 받는다.  
자궁암, 간암, 성인병등 여러가지 검사를  
받는데 난 간염검사를 신청했다. 난 조그마  
한 유리병에 나의 혈액을 한방울을 빼어놓  
고 검진차량안에서 내려왔다.

2월 27일

『김영숙씨./』

『네-에.』

『B형에 감염되었어요. 또한 정밀검사도  
해보면 좋겠는데요. B형 간염이 만성으로  
많이 지속되고 있어요.』

『B형간염이 만성으로요?』

『예. 1세이하의 B형 간염은 그 90%가  
만성보균자로 지속되고, 이 만성보균자의 약  
40%가 30~40년후에 간암으로 사망하고,  
15%는 간경변증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  
니까 아주머니는 갓난아기 시절에 B형 간염  
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당시 치료를 하지 않  
아서 간염이 만성화가 되어 이제 고개를 들  
은 결과죠./』

『그럼 어떻게 하지요.』

『일단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세  
요.』

『간암, 간경변증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  
지요?』

『꼭 그런것은 아니구요 40%는 간암이고,

15% 간경변증을 가져온다는 학자들의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어요.』

내가 간암이나, 혹은 간경변증이라니...  
아니야 믿을수 없어./ 믿지못해./

『어머니 제가 갓난아기시절 아팠는데요./』

『아니, 애는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아니 어머니 갓난아기때 시름시름 앓았  
어요./ 알려주세요.』

『애야./ 어릴때는 아플때도있고 그런거지  
뭐. 원 똥단지 같은 소리는 나이 서른다섯  
이 되도 저렇게 건강한것이 무슨 갓난아기  
때의 아픈것을 묻노.』

난 간에 관한 여러가지의 무서움이 내 머  
리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음을 느꼈다.  
아니야./ 난 환자가 아니야, 난 건강해./  
H대학부속종합병원 3층.

김영숙씨 무슨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말했  
다. 또한 궁금증도 물었다.

두툼한 안경을 낀 의사선생님.

『오늘은 종합진단을 받으시고, 4일후에  
다시한번 오십시오.』

『4일후에 다시요.』

『예.』

오늘은 3월 1일, 3월 5일에 다시오면  
된다.

『나를 데리고 가지마세요?  
 난 아직까지 활일이 많아요.  
 왜 나를 데리고 갈려고 해요.  
 난 이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어요.  
 하느님! 난 쓸모없는 여자예요.  
 날 데리고 가지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여보! 영철아!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것 같애?

시내의 복잡함을 피해서 난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끼니를 채웠다.

어쩐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내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듯했다.

간염에서 간암으로 발전할수가 있단말인가? 아무리 의학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지만 난 이해가 안갔다.

간염이라는 것은 요즘은 T.V선전에서 보면 금방 치유될수 있는 병이라고 선전 했기 때문이다.

석양이 도심을 감싼다.

좁은 골목길 맨끝에 있는 나의보금자리 그곳은 언제나 나에게 행복과 미래의 꿈을 주는 우리 세식구의 잠자리다.

난 대문을 열수있는 힘이 없었다.

무엇인가를 폭발하고 싶었다.

난 절로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짐을 알 수가 있었다. 내가 왜 울고 있을까? 난 확실한 것도 모르면서 울고 있지 않는가?

내눈앞에 아른거리는 모든것들이 울고 있는 것같았다.

난 종이와 펜을 잡았다. 유서를 쓰고싶은 내 충동이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보...』란 그다음의 글을 쓰지도 못하고 종이를 구겼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오늘 남편은 숙직이다.

난 밤이 두렵다. 무섭고, 외롭다. ,

여보세요! 나를 어디로 데려갈것인가요  
 내가 잠잘수 있는 곳은 어떤곳인가요. 난 살고 싶어요. 왜 나를 데려갈려고 하나요. 난 이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어요. 내눈엔 거미줄이 쳐져있어요. 시커먼 거미가 내눈을 가리고 있어요. 여보세요 내눈을 뜰수있게 해 줄수 없어요. 내뺨에 물이 생겨요. 내뺨은 복스러운테 물이 생겨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날 데려가지 말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수술하시지요!』

H大学부속종합병원 3층

내눈앞에는 X-Ray사진이 여러장이 걸쳐 있었다.

「이것은 김영숙씨 간의 X-Ray사진입니다」

「그것이 제 간입니까?」

난 나의 간을 처음보았다.

「간암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조금틀리죠.」

B형 간염으로서 간암으로 발병하는 체질은 주로 동양적인 사람들 다시말해 대만, 싱가포르, 한국, 중국, 일본등이 사람이죠. 일차적으로 간염은 간조직에 손실을 주어 간암을 유발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이때 간경화증

이 동반되면서 정도에 따라 간암이 유발되  
지요.」

「간경화증에서 간암으로요?」

난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모든것이 생전  
처음으로 듣는 말이기 때문이다.

「에 그렇습니다. 간암의 증세로서는 오른  
쪽복부에 다시말해서 간이 위치하는 부위죠.  
그 부위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때 간기능을 막  
고있죠. 부인은 통증을 느껴본적이 없습니  
까?」

「네. 통증요?」

난 생각해봤다. 가끔가다 아래부위가 아  
픈것은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프지 않거  
니 신경을 안쓴것은 사실이다.

「글쎄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난 의사선생님에게 거짓으로 말을 했다. 이  
유는 확실치 않지만 밝히는것이 싫었다.

「또한 간암은 간디스토마 즉 민물생선류  
등을 날로 먹으면 담낭이 막혀서 간암을 유  
발시키기도 하고, 간의 혈액순환의 혈관이  
막혀 팽창하여 터져 출혈 현상도 가져옵니  
다.」

「현재 부인은 간경변증이 발생하고 간암  
세포가 미세하게 퍼져 있기에 빠른시일내에  
수술을 단행하면 괜찮습니다. 현재 수술에  
서의 생존율은 27%선을 육박합니다. 간암  
조직을 완전히 떼어내고 난후 몇달간은 계  
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빠른시일내에 수술을요?」

「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점점 암  
세포가 퍼진다면 현재의 의학기술로서는 손  
을 댈수 없을 만큼의 상처로 됩니다. 또한 생  
존율도 더욱 희박해지고요.」

「생존율이 희박하다고요.」

「네.」

『무슨병이든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에 치료하면 언제나 치료가 가능합니  
다.』

난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저 어둠속에서 내 몸을 내던지고 싶다. 내  
가 이때까지 가꾸어온 내행복, 내꿈, 내보급  
자리, 내아들, 내남편, 모든것은 다 버려야  
만 하나. 난 내생각을 할수가 없었다. 마치  
막 내육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마치 나무토막처럼 내팽개칠 내육신. 눈앞에  
는 사형수를 집행하는 집행관의 얼굴. 모든  
것이 나를 잡아먹을듯한 얼굴들이다.

고통이 슬픔과 함께 밀려오는 저녁시간.  
난 남편에게 그간의 일들을 상세히 말 했다.

「여보! 내일이라도 당장 입원해요. 그리  
고 몸조리 잘하고...」

남편은 눈물로 범벅된 내얼굴에 키스를 하  
면서 날위로했다. 그것은 집에서의 마지막  
생활이고 다음날 나는 누런색의 환자복을 입  
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무슨병이든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치료  
를 하면 언제나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사선생님의 미소면 얼굴에서 나에게 격  
려의 말은 나에게 희망감과 어딘지 모르는  
후회감을 주었다 ,

